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노 동 일
경희대 법과대학 부교수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 솔직히 알기 어렵다. 기왕에도 잘 알려진 김 씨는 출지에 국감 스타가 되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장 질의 때문이다. 김 씨가 과거 방송에서 방위용 복무 시절 군사령관 부인을 아 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 생활을 했다는 말이 사담을 일으킨 것이다.

김 씨 본인의 말처럼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우스갯소리를 위해 과장한 내용일 수도 있다. 정외당 김종대 의원은 “김제동 씨가 사실은 군기교육대에 간 것 같다”고 한다. 본인이 빨리 해명했으면 좋았을 일이라는 것이다. 현안이 산적한 국방위에서 불필요한 ‘진실게임’처럼 됐다고 한탄한다.

진정 軍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김제동 씨의 말마따나 웃자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군사령관’의 명예가 걸린 사안일 수도 있다. 김 씨의 발언이 허위나 과장이라면 더 그렇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다”는 식으로 농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백 의원은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 김제동 씨의 발언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의 비중과 시급성이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산 비리’ 문제이다.

잇을 만하면 터지는 방산 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당장 지난달 26일 동해에서 추락한 링스헬기도 볼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군인 3명이 산화한 원인이 방산 비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해군이 도입한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 캣’은 실제 작전 시간이 30분에 불과할 정도로 작전 성능에 미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면 불량 방탄복 납품 혐의로 기소된 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잠모총장들, 전반기 정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당사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치자.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을 입고 있다.

통영함에는 어군 탐지어나 쓰이는 음파탐지기가 달려있다. 누가 무죄를 받았건 통영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함정임에는 변함이 없다. 불량 부품으로 정비항공기가 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나. 잇따라 추락하는 헬리콥터들이 혹시 그래서인 것은 아닌지. 우리 장비들이 목숨을 걸고 항공기를 타야 하거나, 노골이 송연하다. 방산 비리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애들은 장병들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다. 그나마 법적인 책임조차 제대로 지우지 못하는 게 방산 비리의 실태인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영진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표적 방산 비리요? 글썽요, 하도 많아

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하도 많다”고 책임자가 스스로 고백한 방산 비리는 척결되었는가.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시 소리 높여 질타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했는가. 여전히 ‘질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년세세 똑같은 국방 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아무 효과 없는 연례행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지만 김제동 씨의 발언은 우스갯소리다. 국감 목록에 오를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오죽 군의 명예를 걱정했으면 그렇기 싫기도 하다. 백 의원은 국방부 차관 시절부터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고 한다. 대단한 집념이다. 그 정도의 집념으로 군의 명예를 위해 할 일은 따로 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게 군인이다. 눈앞의 작은 이득보다 부하와 군과 나라의 안위를 앞세우는 게 진정한 군인의 명예이다. 방산 비리 때문에 그런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다. 다시는 방산 비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첩경이다.

종교칼럼

말, 생각, 행동의 힘



연 광
중심사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맺어진 가정이란 그야말로 특별한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지만 결코 어느 가정인데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필이면 왜 내게~”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쉽게 하는 말이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남자 테니스 선수였던 사람이 희귀 병에 걸려, 죽어가는 동안 깨달은 일이다. 그는 갑작스레 쓰러져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젊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내가 어찌뿐 아내와 토끼 같은 어린 자식들을 둔 아버지인 내가 하필이면...”

그러던 그가 이윽고 그 병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생각했다. “그래, 하필이면 왜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떤 경우만은 아니었나”고.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하필이면 테니스를 알게 됐고, 하필이면 소설이 있어 유명해지고, 돈도 벌었다. 어찌뿐 부인이 자신을 사랑해서 평생 생을 함께 살았고, 하필이면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때 그는 한 번도 하늘을 향해 “다른 사람도 아닌 제게 이렇듯 많은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죽음을 앞둔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고 한다. 이 얘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을 것이고, 이와 비슷하게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찬 마음과 말로써 상대방에게 표출했을 것이다. 물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고 수긍도 되지만 평소엔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마음과 말을 이와 같이 한 적이 있는가도 한번쯤은 반조(反照)할 필요도 있다.

말(言)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은 단순한 음성언어의 표현을 넘어서 담은 의미를 실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표현이며, 마음의 진동이다. 밝고 진실성이 담긴 말에는 밝고 평안함을 주는 힘이 있고, 어두운 말, 불행한 말, 대립, 갈등, 분노의 말에는 파괴와 불행이 깃들게 된다. 우리 인생은 무수한 인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했다.

그 많은 인연 중에 부부의 인연은 소중한 것이다. 분명 결혼식에서는 외롭거나 슬플 때가 아플 때가 기쁠 때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경건하게 서약한다. 식이 끝나고 세월이 갈수록 생각과 감정, 성공과 실패에 따라 사랑이 달라지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부부의 도리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를 아내에게 물으면 남편에게 그 탓이 있다고 하고, 남편에게 이유를 물으면 아내에게 탓이 있다고 말을 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지’ 바라기 때문에 사귀었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는 것이다.

살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살이 내게 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덕(德)을 갖춘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아내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만난 인연에 불평 불만만 하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돼 살이 내게 준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따라서 말(言)은 마음의 행동인 까닭에 밝고 평온한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 밝음과 기쁨이 깃들고, 그로 인해 생활환경도 기쁘고 감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지난 여름 폭염을 견뎌내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모든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한다. 한 끼 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가미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지역 역량 결집해 에너지신산업 차질 없도록

최근 정부가 조선업의 사업 다각화를 명분으로 ‘사업 쪼개기’에 나선으로 써 광주·전남 지역 에너지 신(新)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가 해당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그 핵심인 에너지·설비 부품 분야를 울산·거제 등 경남 지역에 내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을 대체업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울산 등 경남 지역에 원자력·화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어 향후 신규 발전시설 건설 및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을 대체업종으로 정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관련 정부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에너지 저장·변환·활용 산업 육성에 나선 광주시도 비슷한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영남 출신 공공기관장 호남의 3배나 된다니

보수정권의 호남 인사 차별 논란은 하도 많이 언급돼서 이제 물릴 정도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대타평’을 내세운 박근혜정부 역시 부처 고위직은 물론 공공기관 간부까지 영남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내 3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414명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역시 영남 출신 현상이 두드러졌다. 간부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과 대구·경북(TK)이 각각 84명, 82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산·경남(PK)이 77명, 대전·충남 42명, 광주·전남 32명, 전북 27명, 강원 2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영남권 인사는 모두 159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38.4%나 됐다. 전남·북을 합친 호남 출신(59명, 14.3%)의 3배에 육박한다. 호남 소외 현상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는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쳤거나 청와대 근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전남도가 향후 10년간 16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성키로 하고 기업 유치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도는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의 조선업 다각화 조치가 자칫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을 에너지 신산업의 모태이자 핵심기반이다.

위에 빠진 조선업의 사업 재편을 바탕으로 울산·거제 등 잠재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기존에 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핵심 부문을 때려내 타 지역에게 넘기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지원예산이 분산되고 사업 파급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에너지 신산업의 동력을 잃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경력자여서 ‘보은’ 시비도 일고 있다. 정부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 의 의사 결정권까지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실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혜택이 편중되면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사의 추가 기울면 공직 재원의 배분이 불합리해질 우려 또한 크다.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구든 고향을 배려하려는 마음은 인지 상정일 것이다. 그래서 영남에 비해 크게 열세인 호남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정략적인 ‘낙하산 인사’가 계속 해서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공공기관 간부 인사 시 능력이 엇비슷하다면 가급적 호남 출신을 중용해 달라고 읍소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

無 等 鼓

갑질이 반드시 집 밖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각박해진 사회상과 가치관을 반영해서일까. 요즘엔 힘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무정한’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희생되는 일이 많아 애달프기만 하다.

바로 얼마 전엔, 인천에서 20대 초반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딸이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해 60일 만에 영양실조로 숨졌다. 경기도 부천에선 두 차례나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곤 치료도 해주지 않는 냉정한 부모를

다 녹아 끊어져 있던 딸이 3개월도 채 살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총 10개월 된 딸이 “울고 보낸다”며 짜증을 내는 어머니가 내던진 장난감에 맞아 숨졌다. “게임을 하는 데 방해를 한다”며 화를 내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26개월짜리 아들도 생겨났다. 천륜(天倫)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설마 천륜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일뿐인 것일까. 중국의 고전문학 세설신어(世說新語)에는 원숭이 모자의 천륜을 그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진나라의 정수 환온이 촉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양쯔강을 거슬러

가고 있었다. 배에 타고 있던 병사가 운데 한 병이 강변에서 어머니와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낚지했다. 그러자 놀란 어머니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와 군사를 태운 함선을 따라 무려 100여 리(40km)를 쫓아왔다. 배가 강폭이 좁아지는 협곡에 이르자 어머니 원숭이는 새끼를 태운 배를 향해 몸을 날렸는데, 배에 이르기도 전에 그만 강물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한 병사가 어머니 원숭이를 건져 올리려 배를 갈라 보았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다 녹아 끊어져 있었다. 이를 본 정수 환온은 이 새끼를 잡은 병사를 매질하고 대열에서

쫓아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일컫는 ‘단장지애(斷腸之哀)’의 유래다. 어린 딸이나 아들을 죽인 부모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

을 깨닫는다. 혹시 어떤 감정이 있었다면 범죄가 통용될까봐 느꼈을 ‘창자가 조이는 두려움’ 아니었을까. 자녀를 죽인 괴물이 생겨난 것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낸 우리의 책임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는 게, 미처 피지 못한 아이들에게 바치는 ‘위령제’일 것이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 계속 이어가자



배 미 경
대한체육회(KOC) 국제위원

한 국가 또는 도시가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도 사회적 프레즌스를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 개최를 국가적 자존감의 향상, 또는 존재감의 과시를 위한 일종의 바다랭귀지로 치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년간 파우더풀한 원더우먼 자세를 취한 뒤 프레즌스를 회복한 여대생이 면접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듯, 국제대회 개최가 사회적 프레즌스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는 국가적 위상 즉,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정점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요즘 이런 흐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제적으로 잇따른 국가부도사태와 경기침체, 테러, 바이러스 공포 등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이벤트에 대한 접근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 하나의 흐름은 80~90년대 만해도 막대한 출혈경쟁을 했던 올림픽 유치 열기가 사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 이탈리아의 로마가 공식최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고, 독일 함부르크, 미국 보스턴도 일찍이 유치 포기를 선언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다. 올림픽 유치에 예전과 같은 열의를 보이지 않는 도시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의 도시들이다. 이들 덕분에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개최 기회가 더 자주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이 2018 동계올림픽을, 일본이 2020년 하계 올림픽을,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3국이 올림픽 트리아앵글을 구축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치경쟁 완화와 더불어 또 다른 흐름은 개최 국가·도시의 대회 운영에도 변화가 일었다는 점이다. 올해 개최된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수천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개폐막식이 바뀌었다. 브라질 올림픽 개막식은 역대 행사에 비하면 60억 원 정도의 소박한 규모였지만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대회 컨셉에 충실해 좋은 평판을 받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이런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개최해 보지 못한 2019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에 더욱 그렇다. 국제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매

우 높다. 대한민국은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3차례 아시안게임, 2번의 동·하계 올림픽, 3차례의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등 지난 30년 간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만큼 많은 대회를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14차례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대략 2년에 한 번꼴로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 또한 2015 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로 스포츠 도시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충만한 때이고, 시민적 열망과 자신감도 충만해 있다.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양적 투자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승화된 고품질 대회를 개최해야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제대회는 국제연맹과 계약에 기초한 의무의 이행 과정이다. 그렇기에 대회준비 초기 단계에는 서로 이익을 위해 치열한 협상과정이 수반된다. 질적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의 스포츠 국가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광주 또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개최 경험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존재감이 충분하다. 스포츠 도시의 존재감이 충만한 도시의 대회는 달라야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